

작가와 독자 박수받으며 부활한 로사다 출판사

Latin america, Spain

고혜선 | 단국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1
2



1 F.C.E.출판사 로고
 멕시코 혁명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책을 읽는 국민이 바로 국력과 직결됨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으로 F.C.E.는 멕시코가 자랑하는 문화 지킴이 구실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스페인 과테말라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그 사업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2 로사다 출판사 로고
 설립자 곤살로 로사다는 세계문학의 명저를 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대중의 문화를 한 차원 높이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올 초 중남미 출판계의 최대 뉴스는 아르헨티나의 로사다 Losada 출판사가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일 것이다. 출판이 경제와 직결되다 보니 중남미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이 지역 출판사들이 경제난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런 악조건에서도 중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 하나가 다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중남미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스페인어권은 유럽의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방대한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다. 물론 여기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및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카리브해 연안의 몇몇 나라는 제외된다. 약 3억5,000천만 명이 상용하는 스페인어권 나라들 중에서 대형 출판사들은 스페인에 밀집되어 있다. 인문과학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그레도스, 백과사전류로 유명한 그리할보, 아나그라마, 문학으로 유명한 플라사 이 하네스,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투스켓츠, 알파과라 등이 우선 떠오르는 이름들이며 이문열의 《시인》, 《젊은 날의 초상》을 출판한 에디시오네스 베,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출판한 트로타도 있다. 이것은 스페인의 경제력이 그만큼 안정적이라서 중남미 각국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대형 유통망을 이용해서 책을 보급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출판독점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남미의 저명 작가들마저도 유포에 문제가 있는 중남미 출판사를 외면하고 스페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해서 스페인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있는 형편이므로 스페인의 출판독점 상황은 더욱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스페인 출판사가 발행하는 책은 중남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책의 장정이 고급스럽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단가가 올라가고 자국에 수입될 때에는 관세까지 부가되어 스페인에서보다도 책값이 더 비싸지니 경제난에 허덕이는 중남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스페인에서 출판된

신간을 사 본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이다. 최저 임금이 100달러인 나라에서 20달러씩이나 하는 책을 사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3억5,000만 명의 스페인어 사용자 중에서 3억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대형 출판사로 세계적인 보급망을 자랑하는 곳으로는 멕시코의 흔히 F.C.E.라 부르는 Fondo de Cultura Económica,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아르헨티나의 로사다 Losada 출판사를 꼽을 수 있다. 이 두 출판사는 대중에게 책을 저렴한 값에 공급함으로써 독서인구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34년에 역사학자 다니엘 코시오 Daniel Cosío Villegas가 국립 경제대학의 학생들에게 책을 쉽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멕시코의 F.C.E.는 이후 국영출판기관으로 자리잡으면서 양서를 포켓용 책으로 만들어 출판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F.C.E.는 그 수익금을 문화활동에 투자함으로써 명실공히 멕시코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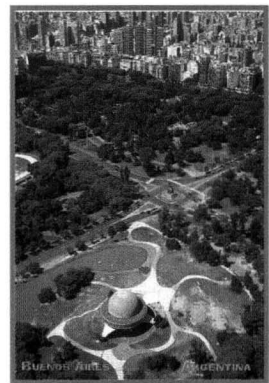
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멕시코 혁명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책을 읽는 국민이 바로 국력과 직결됨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으로 F.C.E.는 멕시코가 자랑하는 문화 지킴이 구실을 단단히 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스페인 과테말라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그 사업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문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의 책을 출판하는 F.C.E.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로사다 출판사는 문학작품 출판이 주요 분야이며 스페인 출신 곤살로 로사다에 의해 1938년에 설립되었다.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지속된 스페인 내란을 피해 당시 스페인의 수많은 지식인은 아르헨티나를 망명지로 택했다. 자신들의 식민지였으며 대서양에 면하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이었고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유럽적 분위기는 이들이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시인 라파엘 알베르티Rafael Alberti, 학자 다마스 알론소Damaso Alonso와 같은 이들이 이 때 아르헨티나행을 감행했으며, 곤살로 로사다도 이들의 일원이었다.

설립자 곤살로 로사다는 세계문학의 명저를 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대중의 문화를 한 차원 높이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주도로 스페인의 문호 미겔 데 우나무노Miguel de Unamuno의 책들을 위시해서 시인 가르시아 로르카Garcia Lorca, 안토니오 마차도Antonio Machado, 라파엘 알베르티Rafael Alberti, 리몬 고메스 데 라 세르나Ramon Gomez de la Serna, 라몬 페레스 데 아얄라Ramon Perez de Ayala, 노벨상 수상자인 후안 라몬 히메네스Juan Ramon Jimenez, 그리고 칠레의 노벨상 수상자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와 같은 시인들이 소개되었으며, 스페인 고전이 소개되었고 세계문학의

거장들 작품이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일례로, 이 출판사가 펴낸 카프카의 《변신》을 번역한 사람은 보르헤스였다. 곤살로 로사다의 꿈은 실현되었다. 로사다 출판사는 세계명저, 특히 세계문학을 대중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많은 중남미뿐만 아니라 스페인 독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또한 중남미 최초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서전을 개최함으로써 출판시장을 확장시키기도 했고 스페인 중남미 출판인협회를 결성시켜서 도서에 관한 법을 연구시키고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로사다 출판사가 늘 탄탄대로를 달린 것은 아니다. 1945년에는 발작이나 졸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검열의 대상에 오르면서 판금조치를 당했고, 로렌스의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 역시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 이러한 어려움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경제난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로사다 출판사는 원금 회수에 심각한 곤경을 겪게 되며 결국 신간 출판을 중단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곤살로 로사다가 죽으면서 경



1
2
3

이 글을 쓴 고혜선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인스티투토 카로 이 쿠에르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오리건 주립대학교 스페인어과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어문학부 스페인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동서양문학에 나타난 거울의 이미지 *El espejo en la Lit. Occidental*》(페루) 《메스티소의 나라들》 등이 있으며 《마당 깊은 집》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베의 가족》 《젊은 날의 초상》 등 우리 소설을 스페인어로 옮겼다.

Latin america, Spain

1, 2, 3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지속된 스페인 내란을 피해 당시 스페인의 수많은 지식인은 아르헨티나를 망명지로 택했다. 자신들의 식민지였으며 대서양에 면하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이었고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유럽적 분위기는 이들이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시인 라파엘 알베르티 Rafael Alberti, 학자 다마스 알론소 Damaso Alonso와 같은 이들이 이 때 아르헨티나행을 감행했으며, 곧 살로 로사다도 이들의 일원이었다.

제난이 가중되자 그의 자손들은 1990년대 초 출판사를 매각하고 말았다. 다행인 것은 로사다의 새 주인 후안 페르난데스 Juan Fernandez가 창립자의 노선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근 10년간 로사다 카탈로그에서 절판이 된 작품들의 상당 부분을 다시 발행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3년에는 포켓용 '로사다 고전'을 기획해서 약 30권을 출판했다. 카프카의 《변신》, 사르트르의 《구토》,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 동물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세계 명저와 중남미 작가인 보르헤스와 비오이 카사레스 Bioy Casares, 로베르토 아를트 Roberto Arlt, 오라시오 키로가 Horacio Quiroga,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작품이 출판되었다.

매달 5권의 책을 출판하겠다는 로사다의 발표에 흥분한 것은 중남미 작가들과 독자들이다. 스페인 에이전트가 눈독을 들일 정도로 유명 문인이 아닌 중남미 작가들은 이제 세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로사다에서 자신의 작품을 출판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또 경제난으로 인해서 스페인 출판사 책을 살 엄두도 못 내던 독자들은 로사다를 통해서 소설과 시를 마음껏 사 볼 수 있게 됐다. 책 한 권이 겨우 1,2달러인데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는가?